

도시경관 및 정원 조성 정책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

-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 시 그린녹색정책 토론회 참석
- 세르비아의 색다른 정책과 문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안목 제고
- 도시 경관과 정원 조성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럽의 주요 선진 시설 방문·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

1 출장개요

기 간	2017. 1. 17.(화) ~ 1. 24.(화) 《6박 8일》			
국 가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연 수 자	4명(의원 3명, 공무원 1명)			
구 분	성명	성별	직위(급)	비고
의 원	나안수	남	문화경제위원장	정원정책 분야
	김인곤	남	도시건설위원	도시경관 정책 분야
	김병권	남	의원	도시시설 정책 분야
공 무 원	김경남	남	행정 8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일 정

11.17.(화) • 인천-이stanbul 배오그라드 • 크라구예바츠 사의회 방문 • 크라구예바츠 정책 간담회 <세르비아>	⇒	11.18.(수) • 크라구예바츠 주요 정책 현장 방문 • 베오그라드사의회 방문 <세르비아>	⇒	11.19.(목) • 스카다리아 거리(시장) • 바치 거리, 갈레르트 언덕 <세르비아/오스트리아>	⇒	11.20.(금) • 마벨 정원 게르메니 •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 게르메너 거리 <오스트리아>	⇒
11.21.(토) • 중앙광장, 리트란 거리 • 성의 정원, 에곤실레 아트센터 <오스트리아>	⇒	11.22.(일) • 프라하 시청(의회) 방문 • 프라하 신구시가지 주요 현장 방문 <체코>	⇒	11.23.(월) • 페트르진 전망대, 레트나 공원 • 프라하 → 이stanbul <체코>	⇒	11.24.(화) • 이stanbul → 인천	

○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현지)	주 요 내 용	비 고
1.17.(화) 1일차	인천 이스탄불 베오그라드	00:40 ~ 06:15 (인천) (이스탄불) 08:40 ~ 08:30 (이스탄불) (베오그라드)	· 인천 → 이스탄불 → 베오그라드	TK-091 TK-1081
	크라구 예바츠	10:00 ~ 12:00	· 크라구예바츠 시청, 시의회 방문	
		13:00 ~ 18:00	· 크라구예바츠 정책 간담회 참석 (크라구예바츠 녹색 정책 등)	정책간담회
1.18.(수) 2일차	크라구 예바츠	09:00 ~ 18:00	· 크라구예바츠 주요 정책현장 방문	현장방문
			· 베오그라드 시 의회 방문	
1.19.(목) 3일차	베오그라드	09:00 ~ 18:00	· 스카다리야 거리, 스카다리야 시장 (예술인의 거리, 돌바닥·건물페인팅)	도시재생
			· 바치 거리, 시민공원 (변화거리 도행자 전용 도로 설치, 박물관, 온천, 식물원, 놀이공원 조화)	도시조성
1.20.(금) 4일차	팔츠부르크	09:00 ~ 18:00	· 미라벨 정원, 게트라이데 거리 (영화 촬영지, 독특한 철제 간판 설치)	정원구성/거리조성
			·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 케른트너 거리 (구건물과 도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지역)	도시재생
1.21.(토) 5일차	체스키 크롬로프	09:00 ~ 18:00	· 중앙광장, 라트란 거리 (동화마을로 독특한 건축물 조성)	도시조성
			· 성의정원, 에곤실레 아트센터 (에곤 실레의 예술작품 전시)	정원문화/도시재생
1.22.(일) 6일차	프라하	09:00 ~ 18:00	· 프라하 시청(의회) 방문 (프라하의 역사와 도시정책에 대한 설명)	도시조성
			· 프라하 신·구 시가지 주요 현장 방문	도시조성
1.23.(월) 7일차	프라하	09:00 ~ 17:00	· 페트르진 전망대, 레트나 공원 등 (탐과 정원 함께 조성, 강변공원 조성지)	정원구성/정원문화
	프라하 이스탄불	18:45 ~ 23:35	· 프라하 → 이스탄불	TK1770
1.24.(화) 8일차	이스탄불 인천	02:30 ~ 18:25	· 이스탄불 → 인천	TK90

3

출장 결과 보고

□ 크라구예바츠 정책 토론회 참석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1. 17.(화) 12:00
- 장소 :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 시청(식물원 설립 예정 부지, 메모리얼 파크 등)
- 참석 : 10여명
- 크라구예바츠 시 : Radomir Nikolic(시장), Miroslav Petrasinovic(시의회의장), Milijan Bjeletic, M.A(시의원), Natada Pesic Radosavljevic(지속균형발전부서장), 담당공무원 등

-내용

주요내용

- 크라구예바츠 시 식물원 건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 교환
(안탈리아엑스포 세계 최고 정원 선정,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지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공유)
- 예산의 확보(투자 등), 특이한 시설, 다양한 홍보 방법, 운영시 특이사항, 향후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교류
- 식물원 조성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토론
- 크라구예바츠 투자 정책 설명 및 순천 기업의 현황 정보 교류
- 향후 두도시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더 발전적인 관계 형성

아직 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인 세르비아의 여러 도시중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구예바츠에서 열리는 정책간담회에 참석. 크라구예바츠의 힘들여 계획하고 있는 식물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사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자리가 이루어 짐.

전 세계적으로 공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동반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크라구예바츠에서 식물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터기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된 2016 안탈리아 정원 엑스포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원이 안탈리아 엑스포 세계 최고 정원 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보유하게된 다양한 노하우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게 됨.

먼저, 크라구예바츠 메모리얼 파크 인근에 식물원 건립을 추진.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는 홍보, 향후 정원의 운영 노하우 등 정원엑스포를 진행하면서 알게된 정보에 대한 교류의 시간을 가짐.

특히 크라구예바츠 메모리얼 파크 인근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향후 크라구예바츠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의 홍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함.

또한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의 다양한 현안 사업, 이번 식물원 조성 이후 관심을 가질 분야(반려동물 산업) 등에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하여 과거에는 교류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두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함께함.

그리고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업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값싼 노동력과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에 대한 소개와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업체의 세르비아 투자를 적극 홍보 요청하여, 향후 다양한 기업이 세르비아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

○ 현장사진



크라구예바츠 관계자와 간담회 및 오찬



크라구예바츠 시장님과 토론



크라구예바츠 메모리얼 파크 방문 및 식물원 예정부지 방문

□ 도시재생

-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는 현재도 그 가치가 높지만 미래에 그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임. 이러한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줄 근간이 되어줄 것이기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환경을 잘 보존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 선진지역이 보여준 것과 같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함.

○ 게트라이데 거리

시 사 점

- 독특한 시설이나 화려한 시설이 없이도 그 도시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도로, 간판을 설치하여 관광명소로 발전
⇒ 중앙동(문화의 거리), 연향동(패션의 거리) 등 우리 지역 구도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테마를 만들고 그에 맞춰 .

중앙동의 경우 창작예술촌 조성, 다양한 예술품이 전시되는 문화의 거리라는 테마로 정착되어 테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

-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시설물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아름다운 간판과 깨끗하게 정비된 골목길로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유명한 이 곳은 요란하지도 않으면서도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건물, 간판, 도로 등을 바탕으로 훌륭한 광광지가 된 점은 우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획일적이지 않으면서도 그 지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지 않아 전력 낭비가 없이도 낭만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러 나라의 관광객이 찾게 하는 거리가 된 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의 중앙동과 연향동 지역 등에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임.

○ 황금소로

시 사 점

- 관광지를 단순히 관람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미부여로 특별한 공간으로 각인시켜 성공적인 지역

⇒ 순천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단순히 관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 지역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의미있는 지역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프라하 성 안에서 동문 쪽으로 가다 왼쪽으로 들어서면 색색의 집이 늘어선 골목이 나오는 데 이 골목이 바로 ‘황금 소로’다. 마치 동화책 속에 나올 법한 아기자기하고 예쁜 집이 나란히 서 있는데 원래 이곳은 16세기 성에서 일하는 시종이나 집사, 보초병이 살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그 후 루돌프 2세가 고용한 연금술사들이 모여 살면서 ‘황금 소로’라고 불리었는데 지금은 15채 정도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 기념품 점으로 탈바꿈. 거리 중간쯤 푸른색 집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살던 집으로 프라하 성을 배경으로 한 소설 <성>을 집필해 특히 관광객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

- 이 지역은 과거에 지어진 아기자기한 집들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황금소로라는 명칭과 함께 골목길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킨 점은 우리지역 구도심 활성화 특히 문화의 거리나 국가정원 등에 의미를 부여하여 특징적인 공간으로 활용 가능

○ 훈데르트 바서하우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이 곳은 알록달록한 건물 외관과 서로 다른 크기의 창문, 건물을 둘러싼 덩굴, 옥상위의 나무 등 독특한

외관으로 오래된 건물을 행복한 공간으로 바꾸고 유명 디자이너를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로 우리 중앙동의 창작 예술촌 조성 사업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장소임.



게트라이데 거리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 내부와 외부

□ 정원 조성

○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으로 지방정부는 지나친 외형적 경제적인 확장에 치중한 경향이 강하였으나, 그에 환경·문화적으로 도시에 쾌적한 생명력을 불어 넣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에 주민들의 휴게 쉼터와 공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확대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도를 높이고 특색있는 테마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게 됨.

시 사 점

· 유럽의 정원이 크고 화려한 측면이 강한 이미지이지만 내부를 속속 들여다 보면 이용자를 위한 자그마한 조각,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는 사색의 공간, 관광객에게는 그 지역과 관련된 조각상과 안내도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이해를 돕는 조형물로 이용하고 있음.

⇒ 이용자가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만들어진 안내물 제작이나 쉼터 등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제작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도 좀 더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제작

○ 칼레메그단 공원, 쉐브른 궁전(정원), 벨베데레 궁전, 미라벨 정원

- 칼레메그단 공원 같은 경우 전쟁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시민들의 휴식터로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함께 나와 산책하고 뛰어 다니며, 아이들은 썰매를 타는 등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역사적 의미로써 꾸며진 공간에는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임.

- 또한, 공원으로 중간 중간에 다양한 모양의 벤치와 조각상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조용히 앉아 사색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순천 낙안읍성과 부읍성 등과 같은 유적지나 동천과 같은 천변에도 현재의 그래피티와 적절하게 조화될만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 또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 조성도 고려.
- 잘 조성된 정원을 영화나 각종 TV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더 나아가 스토리를 연결시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뿐 만 아니라 각종 부가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음.
- 특히 해당 지역의 유명 화가인 에곤 쉴레의 작품 전시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로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있음.
-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평정원과 같이 넓은 공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마을 내부의 불필요한 공간 정비나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





칼레메그단 공원



벨베데레 궁전(정원)



미나벨 정원

셴브론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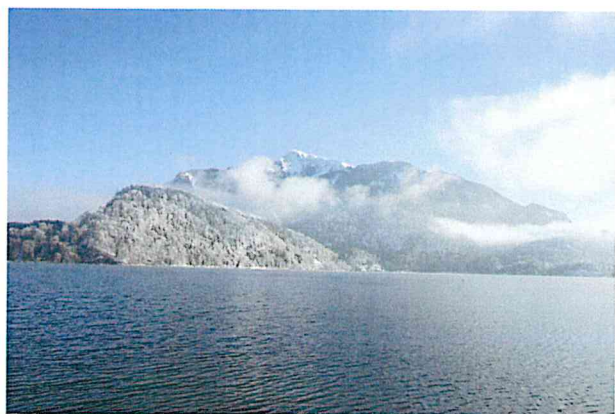
○ 각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었지만, 그 중 문화재 건물 모형을 제작하여 안내하는 것은 그 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해당 문화재를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 할 수 있어 우리 지역에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과거의 성 앞에서 기사 복장을 간단히 착용하여 사진을 찍는 것은 단순 금액의 가치보다는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면서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 사진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 지역 관광지 홍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번 연수 기간 중 지금까지 쉽게 접하지 못한 세르비아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접할 수 있었으며, 우리 순천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럽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됨.

또한 이번 연수 기간 중 느낀 유럽 지역과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눈이 띄는 것은 “지역 문화재의 보존” 이라는 점임. 우리 지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전통적인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유럽은 기존의 문화 유적을 잘 간직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관광 자원화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의 문화를 없애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토대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써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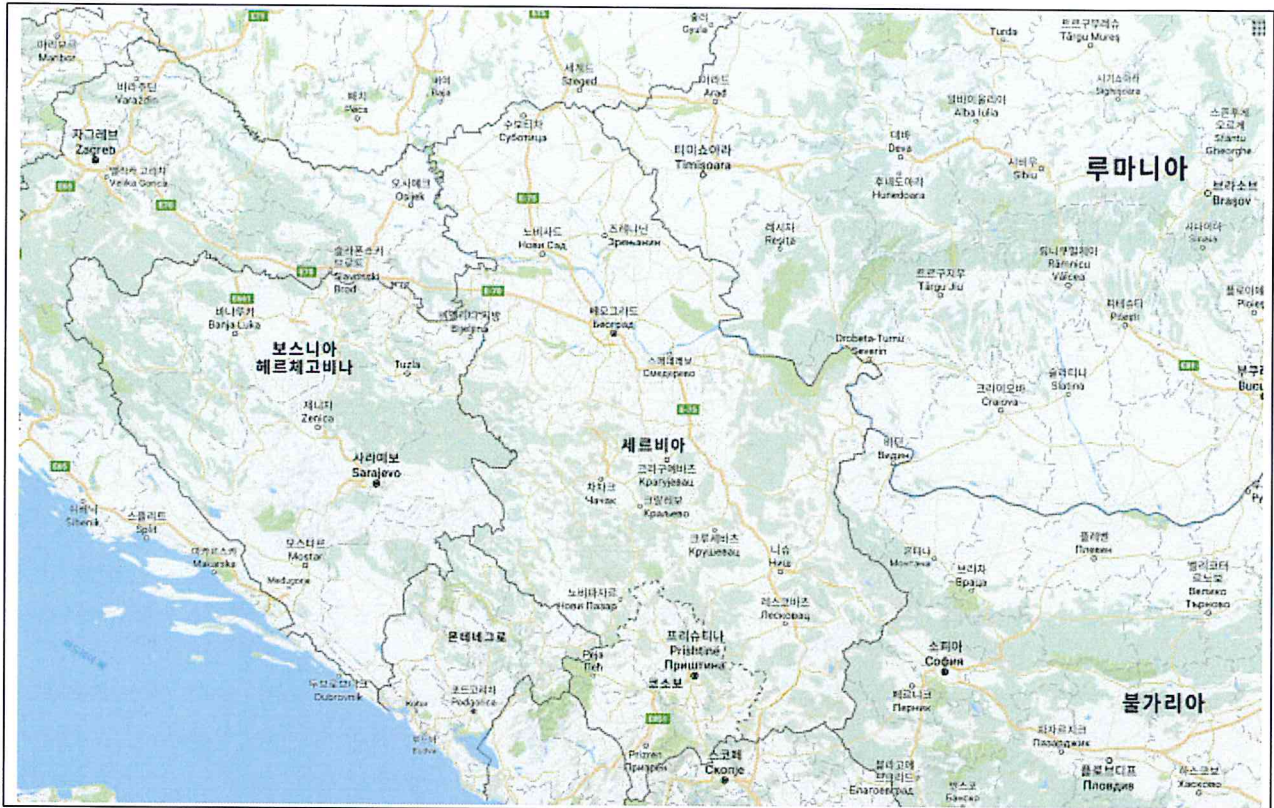




4

현 황

□ 세르비아



○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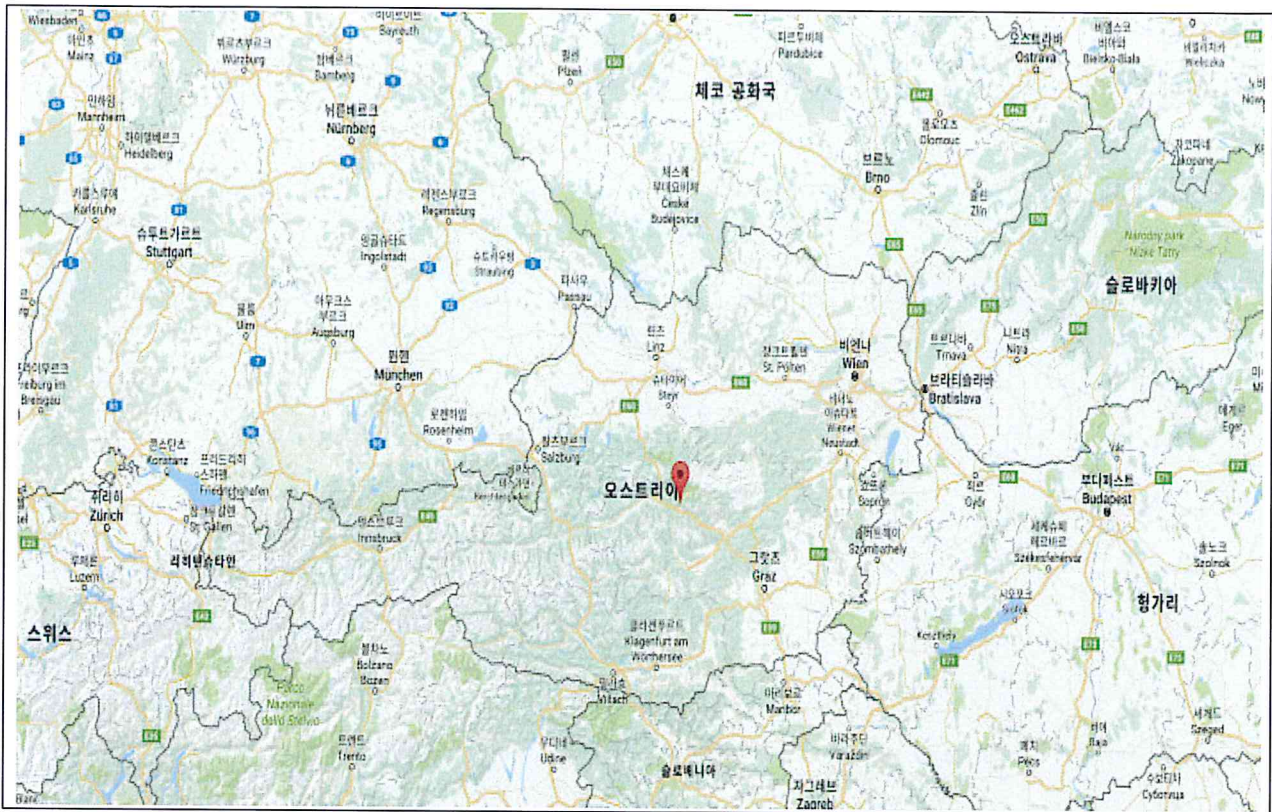
- 면적 : 77,474km²
- 인구 : 7,176천명(2015년 현재)
- 수도 : 베오그라드
- 언어 : 세르비아어
- 종교 : 세르비아정교, 이슬람교, 가톨릭
- 정식명칭은 세르비아공화국(Republic of Serbia)이다. 동쪽으로는 루마니아, 남동쪽으로는 불가리아, 북쪽으로는 헝가리, 서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남쪽으로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와 국경을 접한다. 1998년 코소보-메토히야(Kosovo

and Metohia) 자치주에서 세르비아 정부군이 알바니아계에 대한 무자비한 인종청소작전을 펼친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 한때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강대국들이 알바니아계의 독립을 지지하는 가운데 코소보 자치주는 2004년부터 유엔 코소보임시행정부 직할 통치 아래 있다가 2008년 2월 17일 분리독립을 선언하였다. 행정구역은 29개 행정구와 1개 수도(베오그라드)로 이루어짐.

○ 주요방문지

- 크라구예바츠 : 크라구예바츠는 세르비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슈마디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슈마디야 구의 행정 중심지이다. 자동차와 무기 산업의 중심지이며 1818년부터 1839년까지 세르비아 공국의 수도였던 곳.
- 칼레메그단 공원(요새) : 칼레메그단은 칼레(터, 요새)와 메그단(전쟁)의 합성어로 전쟁터를 뜻함. 가장 최근에는 코소보 사건으로 1999년 4월 NATO군의 베오그라드 폭격이 있기도 하음. 세르비아가 터키에서 독립된 이후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현재는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이용되는 베오그라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약 30ha), 내부에는 로마시대의 이중요새, 산책로, 군사박물관, 빅토르 동상, 분수, 다양한 예술가들의 동산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오스트리아



○ 일반 현황

- 면적 : 83,871km²
- 인구 : 8,711천명(2016년 현재)
- 수도 : 빈(Vienna)
- 언어 : 독일어
- 종교 : 카톨릭(74.1%), 개신교(4.6%) 등
- 유럽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빈(비엔나)이며,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인구는 8,666천명정도이며, 면적은 83.871km²로 세계 114위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3,871달러로 세계 25위에 이를 정도로 소득수준이 높다. 2차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빠르게 복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특히 관광산업은 오스트리아 경제에서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남부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 빈, 잘츠부르크 등 중세문화가 번성했는 곳이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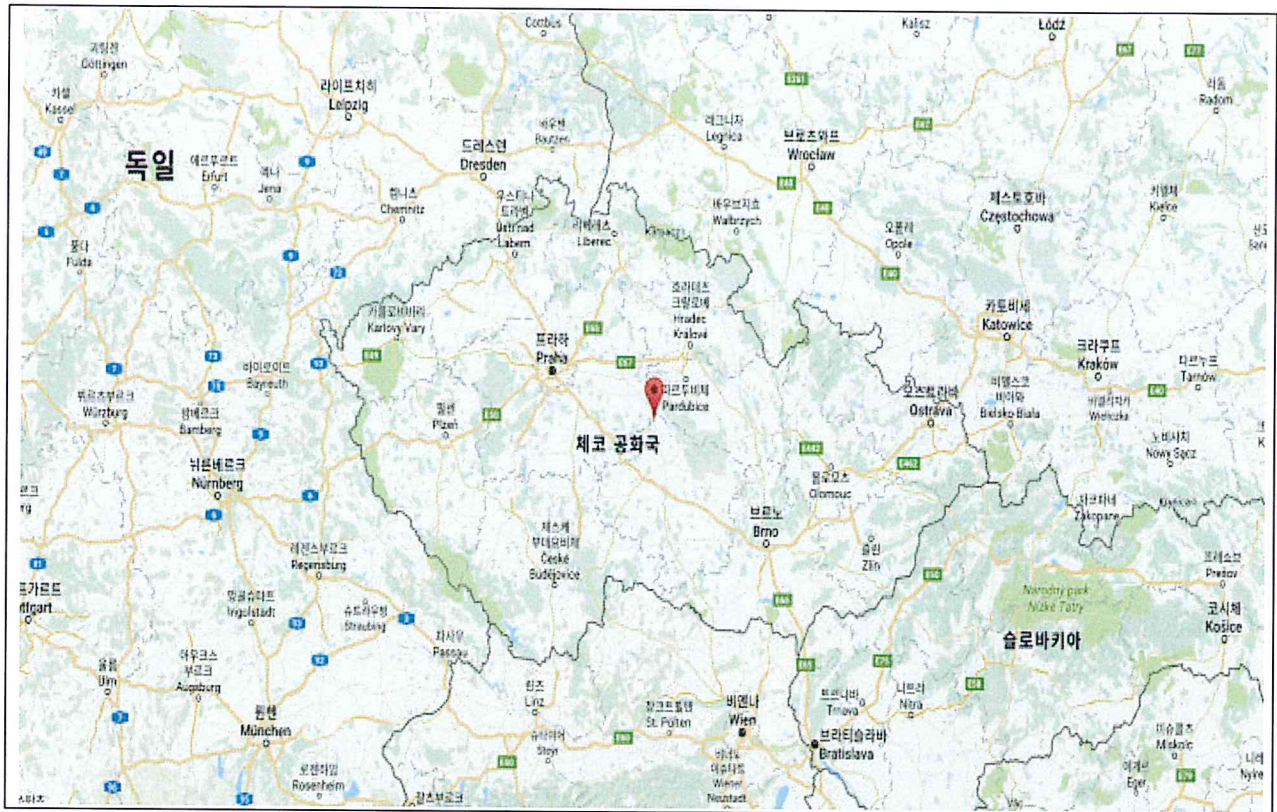
○ 주요방문지

- 시립공원 : 1862년에 조성된 시민들의 휴식처 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요한 스트라우스를 비롯한 12명의 음악가들의 기념상이 공원 곳곳에 있으며, 그중 왈츠의 왕 요한 스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켜는 동상은 기념촬영을 하려는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대표적인 곳. 공원 안에 있는 살롱 등의 콘서트장인 쿠어잘롱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밤 왈츠 공연이 있음.
- 미나벨 정원
 - 정원은 1690년 바로크 건축의 대가인 요한 피셔 폰 에를라흐가 조성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 송’을 불렀던 곳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
 - 위 치 : 비엔나 제3행정구 헤츠가세역 인근
 - 대지면적 : 1,543㎡
 - 건립기간 : 1982년 ~ 1985년
 - 개발목적 : 고급주택이 아닌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주택 건설
 - 디자이너 : Friedensreich Hundertwasser(1928년 ~ 2000년)
 - 구성용도 : 주택 52호(30~150㎡), 상점 5호, 어린이놀이터 2곳
 - 조성상 특징 : 알록달록한 건물 외관, 서로 다른 크기의 우스꽝스러운 창문, 창문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 옥상에는 250그루의 수목, 복도는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건축가의 독특한 작품을 세계적으로 관광자원화
- 게른트너 거리 : 빈 최대의 변화가로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성 슈

테판 성당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 길 양 옆에는 레스토랑, 카페, 유명한 브랜드 숍 등이 즐비하고, 거리는 유명 음악가의 이름과 사인이 담긴 별모양의 바닥장식이 되어 있음. 거리가 끝나는 성 슈테판 성당 광장 앞은 언제나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으로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이루어짐.

- 쉔부룬 궁전 : 마리아 테레지아의 숨결이 느껴지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전 황제 요제프 1세를 위해 패셔폰 에르라흐가 설계한 궁으로 1700년에 완성. 합스부르크 왕가와 라이벌 관계였던 프랑스의 부르봉왕가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보고 자극을 받아 짓게 되었는데 재정악화로 베르사이유 궁보다는 작은 규모로 지음.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1,441개의 방이 있지만 40여 개의 방만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궁정 정원에는 분수와 언덕 위에 있는 있음.
- 비엔나 소재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전 쉔부룬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하여 1696년에 만들어짐.
- 아름다운 외관과 화려한 내부설계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1,441개의 방 중 45개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으며 궁전 뒤편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과 바다의 신을 상징하는 넵툰분수가 있어 결혼을 하는 신랑신부의 웨딩촬영지로 유명

□ 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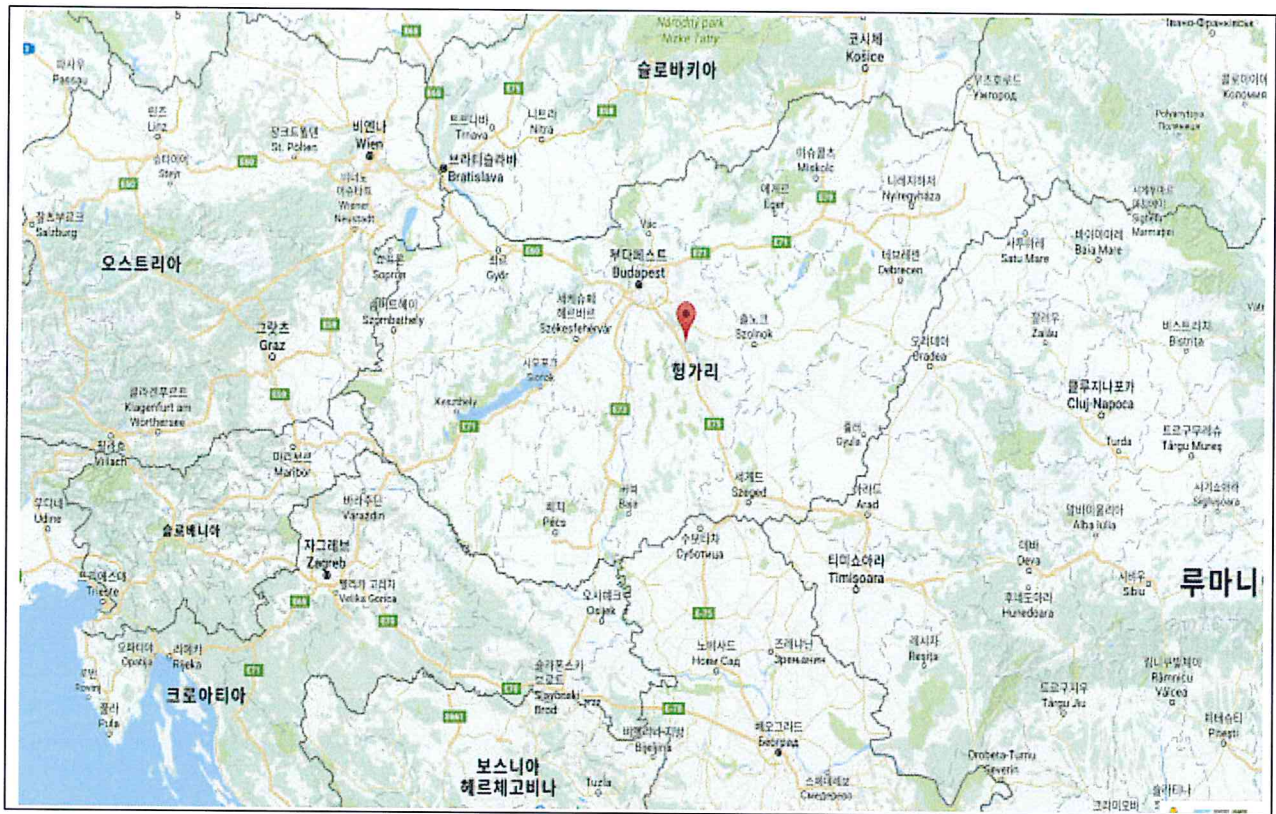
○ 일반 현황

- 면적 : 78,867km²
- 인구 : 10,644천명(2015년 현재)
- 수도 : 프라하
- 언어 : 체코어
- 종교 : 가톨릭교, 개신교, 그리스정교
- 정식 명칭은 체코 공화국이며 수도는 프라하이다.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 서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북쪽은 독일과 폴란드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193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해체되면서 분리 독립하였다. 국토면적은 약78,864km²이며, 인구의 대부분은 슬라브족의 한 갈래인 체코인이고, 종교는 카톨릭 39.2%, 무교 39.7%정도로 비슷한 분포이다. 날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여름엔 습도가 낮고 겨울엔 눈과 비가 자주 내림

○ 주요방문지

- 프라하 성(체코어 : 프라슈스키 호라트)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블타바 강의 서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성으로 프라하의 초기 역사부터 존재해 왔으며 프라하의 상징이자 체코의 상징이다. 체코의 왕들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곳에서 통치를 했으며 현재는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 관저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프라하 성은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옛성이다. 길이는 약 570 미터, 폭은 약 130 미터에 달한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라하 성은 많은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체코인들의 자랑거리이다. 11~12세기에는 로마네스크 바실리카 교회가 성 비타 로툰다를 대체하기 위해 세워졌고 이어 성 조지 교회가 재건되었으며, 특히 같은 시기에 외각의 돌담이 축성되어 성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9세기경에 건축되기 시작한 길이 570m인 프라하 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중세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 바츨라프 광장 :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구시청사 광장으로 이어지는 기다란 길을 신 시가지라고 하며, 이 신시가지의 바츨라프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을 바츨라프 광장이라 부른다. 바츨라프는 체코의 영웅으로 칭송되는 인물로, 10세기경 보헤미안 기사들과 함께 적군을 물리치고 체코의 국난을 극복했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봄'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이곳에서 수많은 체코의 젊은이들이 소련에 대항하여 자유를 외쳤고 그 흔적으로 당시에 분신한 두 명의 청년 사진과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심어진 나무가 바츨라프 동상 앞에 놓여 있다.

□ 헝가리



○ 일반 현황

- 면적 : 93,028km²
- 인구 : 9,897천명(2015년 현재)
- 수도 : 부다페스트
- 언어 : 마자르어
- 종교 : 가톨릭교, 개신교, 그리스정교
- 유럽 중동부의 내륙국가로 도나우 강이 국토를 관통하고 있으며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다. 인구는 약 1,000만명 정도이며, 그 중96%가 마자르인이고 공용어는 헝가리어를 사용한다. 국토면적은 93,030km²로 작은 국가이지만 헝가리평원이라 불리는 중부 유럽의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민족의 이동 경로로서 복잡한 역사를 지닌만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임

○ 주요방문지

- 부다페스트 : 도시중심에 흐르는 아름다운 도나우 강의 수려한 경관 덕분에 부다페스트는 “도나우의 진주” “동유럽의 장미” 라는 칭송을 받고 있음. 896년 동양인의 후예 마자르족이 이곳에 국가를 세웠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의 부다와 동쪽의 페스트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양쪽의 다리가 놓이면서 교류가 활발해졌고 결국 하나로 합쳐 도시명도 부다페스트가 됨. 온천을 즐기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물의 도시
- 겔레르트 언덕 : 왕궁 언덕 남쪽에 위치한 해발 235미터의 언덕 지명은 헝가리인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킨 이탈리아 선교사 성 겔레르트의 이름에서 유래. 원래 와인 제조 농가가 있던 곳으로 가톨릭에 반대하는 폭도들이 그를 와인통에 넣어 강에 던졌다고 한다. 20세기 초까지 도박장과 매춘굴로 악명 높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부다페스트 시내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최고의 전망대가 되었음. 언덕 중턱에는 성 겔레르트상이 있고 정상에는 시타델라 요새가 있음